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보화 수준과 수요에 대한 실증적 연구*

권오혁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1. 서론

정보화사회가 전개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정보격차(digital divide)이다. 디지털 정보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단순히 정보를 접근하고 수용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가공하고 생산해내는 것이 가능해진 반면, 이러한 작업에는 일정한 지식과 자산 그리고 인프라 등이 요구되어 정보사용에 집단간의 차이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격차는 개인과 집단간의 역량의 차별화를 유발하여 그들 간의 소득과 생활 기회의 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개인 및 집단 간의 정보격차는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력, 연령, 소득, 직업, 성별, 지역 등은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온 바, 그 중에서도 지역간 정보격차는 여타의 지표들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즉 학력, 연령, 소득, 직업, 성별 등 여타의 지표들이 개인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지역간 정보격차는 개

* 본 조사연구는 필자가 참여하여 작성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확산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중 필자의 연구부분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인적 특성을 넘어선 지역적 수준의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그간의 정보격차 연구들에서 지역간 정보격차는 충분히 논의 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그간의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간 정보격차보다는 여타의 인구·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일부 지역간 정보격차를 논한 경우에도 정보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대안제시보다는 주로 도시계층 수준에 따른 통계적인 접근이 대다수가 되어왔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화 취약지역인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화의 수준과 정보화에 대한 집단별 태도를 비교·분석하려 한다. 특히 읍지역과 면지역의 경우를 대비하여 접근하려 하는데, 그간에 읍·면을 동일한 성격을 갖는 지역으로 분류하여 연구되어 왔지만 양 지역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나아가 지역 내에서도 거주지 특성이나 연령, 직업, 성별, 교육정도 등에 따라서 정보화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인 연구로서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사라고 할 것인데, 지역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지역정보화 수요자들의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보화 사업은 궁극적으로 수요자 집단 별로 수요 특성에 맞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정보화가 진전되어 수요자들의 요구가 변화되면 그에 따라서도 전략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 조사의 목적은 한편으로 정보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실태를 -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지역정보화에 대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본 조사의 대상은 강진군, 부여군, 영덕군, 가평군 등 4개 군으로서, 각 군의 읍지역과 면지역간의 정보화 실태와 정책적 요구사항을 질문하였다. 이 네 개 군을 선정한 것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구분한 후, 그곳에서 각각 1개 군을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다. 각 군에서 가구를 선정한 방식은 각 군의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 군별로 비슷한 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

<표 1> 도시계층별 컴퓨터 보유 비교 (단위: %)

	통계청 조사 (2000. 7)	한국정보문화센터 조사 (2001. 4)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조사 (2001.6)
전국	46.4	78.7	73.0
대도시	51.6	81.8	77.2
중소도시		78.0	71.2
읍·면 지역	28.6	69.0	62.1*

주: *는 군지역

자료: 통계청(2001. 6), 한국정보문화센터 내부자료(2001. 8),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 7)

된 설문지를토대로 한 전화설문 방식에 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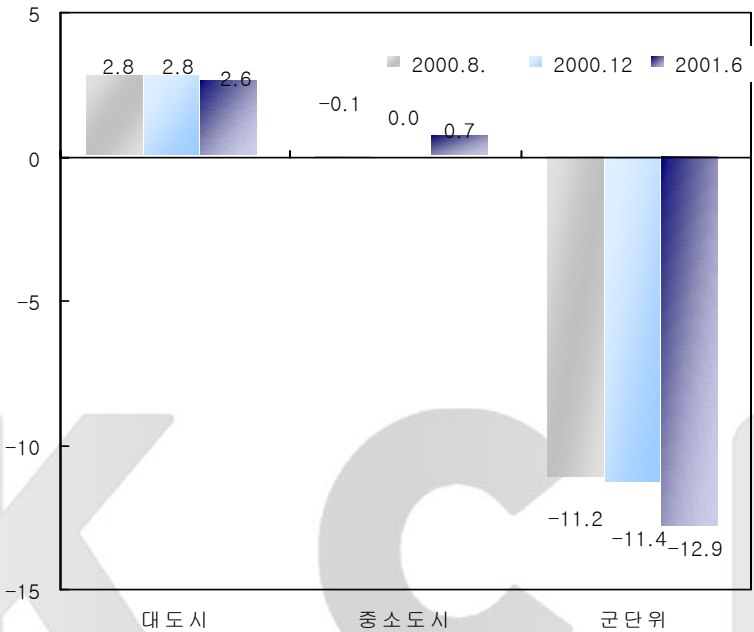
2. 국내 지역간 정보 격차의 실태

지역간 정보 격차에 있어서 핵심 문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정보적 취약성이 개선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나타난다. 이는 그간의 각종 통계 조사들을 통해 알수 있는데, 특히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읍·면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정보화 수준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간 컴퓨터 보급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들(<표 1> 참조)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컴퓨터보급률 격차가 작은 반면 이들과 읍·면지역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 조사들 간에는 읍·면지역 가구의 컴퓨터보유율에 대한 조사결과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의 정보화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은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이용률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전국적인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지역은 인터넷 이용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지역의 인터넷이용률

<그림 1> 도시계층별 전국 평균대비 인터넷 이용률 추이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 7)

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군지역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국평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정보화의 핵심적 취약지역이 농어촌이며, 특히 읍보다는 면지역이 정보화 낙후지역임을 시사한다.

또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9)의 정보화지수 산출 결과를 보면, 대도시를 100으로 할 때 중소도시는 94.9, 읍·면지역은 83.9이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정보격차가 5포인트 내외인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간에는 약 11포인트의 정보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약점은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읍·면 지역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점이다. 기실, 지역간 정보격차 현상에 있어서 보

<표 2> 읍·면간 컴퓨터 보유현황 비교 [단위: 명, () 안은 %]

구분	계	읍	면
계	419 (100.0)	138 (100.0)	281 (100.0)
보유	148 (35.3)	72 (52.2)	76 (27.1)
비보유	271 (64.7)	66 (47.8)	205 (72.9)

다 현격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읍지역과 면지역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읍지역이 일반적으로 도시인구의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면지역은 농촌인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령이나 직업 등에 있어서 읍지역과 면지역 인구 사이에는 상당한 인구사회학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 지역에 대한 비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사들에서 간과된 읍과 면지역의 정보화 격차 수준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예상한 것 이상으로 읍지역과 면지역 사이에 정보화 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과 면지역 사이의 컴퓨터 보유비율을 비교해 보면 양 지역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발견되고 있다. 읍지역의 컴퓨터 보유비율이 52%에 이르고 있는 반면 면지역은 그 절반인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통계청(2001. 6)의 조사와 비교해 본다면, 읍지역의 컴퓨터 보급율은 대도시의 컴퓨터 보급율(52.2%)이나 동부의 컴퓨터 보급율(51.6%)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읍지역의 컴퓨터 보급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면지역의 컴퓨터 보급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읍·면 지역 가구들의 인터넷 설치 및 활용 실태를 비교해 보자. 읍지역의 경우 응답가구의 40.6%가 인터넷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 보유 가구의 77.8%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면지역은 총응답자의 17.4%만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면지역 컴퓨터 보유 가구의 64.5% 수준이다. 즉, 인터넷 보급 측면에서 읍·면 지역간의 정보격차는 더욱 크며, 정보격차의 문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읍을

<표 3> 읍·면간 인터넷 설치현황 비교 [단위: 가구, () 안은 %]

구분	계		읍		면	
	컴퓨터보유 자 중 비율	총응답자 중 비율	컴퓨터보유 자 중 비율	총응답자 중 비율	컴퓨터보유 자 중 비율	총응답자 중 비율
계	148(100.0)	419 (100.0)	72 (100.0)	138 (100.0)	76 (100.0)	281 (100.0)
설치	105 (71.0)	105 (25.1)	56 (77.8)	56 (40.6)	49 (64.5)	49 (17.4)
미설치	43 (29.1)	314 (74.9)	16 (22.2)	82 (59.4)	27 (35.6)	232 (82.6)

포함한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인 면지역간의 격차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령인구와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면지역 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역적 정보화 수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국내 지역간 정보격차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지역간 정보불평등이 도시계층 수준에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그 중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정보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사이에는 정보의 불평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보다 주목할 현상은 읍지역과 면지역간의 격차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기실 읍·면지역의 정보화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읍지역보다 면지역의 정보화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화 지표 여러 부문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니와, 인터넷 이용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도시 및 읍지역과 면지역간에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도시계층들 간의 정보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지역 자체의 특성도 있겠지만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지역과 면지역 사이의 격차는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지역은 직업별로 볼 때 상공업 종사자가 다수이고 고학력자가 많으며 평균 연령도 낮다. 이에 대해 면지역은 농어업종사자들이 다수이고, 농어업 종

사자들의 학력, 연령상의 특성과 정보화 수준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지역간 정보격차가 상당한 정도로 지역 내 구성 집단들 간의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인구적 특성에 따라서 이들의 정보화 수준이 다양하며, 지역정보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들 집단의 특성 및 이들 각각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지역정보화에 대한 농어촌지역 주민 수요의 집단간 비교분석

1) 지역정보화정책 일반에 대한 주민 수요

정보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여기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지역정보화정책에 대한 요구들을 분석하려 한다. 먼저 농어촌지역 정보화정책 일반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농어촌지역 정보화를 위해 우선해야 할 일에 대해 응답자들은 무엇보다도 농어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기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기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농어촌지역의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을 학습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공적인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읍·면 지역을 비교할 경우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요망은 면지역 주민들이 보다 높았다.

두 번째로 지적된 사항은 인터넷 사용료 감면이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노령인구와 경제적 약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사용방

<표 4> 읍·면별 농어촌지역 정보화 희망방식[단위: 명, () 안은 %]

구분	읍	면	계
정보화교육 확대	17 (21.5)	20 (29.0)	37 (25.0)
마을정보센터 설치	9 (11.4)	8 (11.6)	17 (11.5)
컴퓨터의 저렴한 보급	13 (16.5)	6 (8.7)	19 (12.8)
초고속통신망 기반시설 구축	14 (17.7)	7 (10.1)	21 (14.2)
농어민용 프로그램 개발	3 (3.8)	7 (10.1)	10 (6.8)
인터넷 사용료 감면	14 (17.7)	10 (14.5)	24 (16.2)
기타	0 (0.0)	4 (5.8)	4 (2.7)
잘 모르겠음	9 (11.4)	7 (10.1)	16 (10.8)
계	79 (100.0)	69 (100.0)	148 (100.0)

법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와 더불어 사용료의 부담이 적지 않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사용에 관한 농어촌지역 주민조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일종의 지역보조금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에 대한 인터넷사용료 감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어촌 주민들이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세 번째로 요망한 것은 초고속통신망기반시설 구축이다. 최근 인터넷 기술의 급진전에 따라서 그 내용도 다양하고 화려해졌을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의 부설이 긴요하며 농어촌이 지역적 여건 때문에 초고속통신망의 수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다른 사업들로는, 컴퓨터의 저렴한 보급, 마을정보센터 설치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농어민용 콘텐츠개발에 대한 요망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특히 농어촌용 콘텐츠개발에 대한 읍·면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은 대조적이어서, 면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다소의 비중(10.1%)을 두고 있는 반면 읍지역 주민들은 3.8%만이 그것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종합컨대 지역 주민들의 응답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정보화 교육, 경제적 인센티브, 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는 농어촌지역정보화에 있어서 핵심적 부분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농어촌지역 정보화에 대한 직업별 요망사항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다. 농업종사자, 무직과 행정사무직들의 경우 정보화교육(42.9%)을 우선적으로 요망하고 있는데 대해 상업·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컴퓨터의 저렴한 보급과 인터넷 사용료 감면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인터넷사용료 감면에 대한 희망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직업별로 이렇듯 차별화되는 것은 직업활동에 따라서 정보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각 직업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농어촌지역 정보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학력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학력별로 상당히 다른 정책적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 이상, 고졸, 중졸 등의 상대적 고학력층에서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들은 영어교육을 받은 집단들로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농어촌 정보화교육은 정책적으로 대단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화를 선도할 농어촌지역의 혁신선도그룹을 양성하는 것은 지역정보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정보화교육 다음으로 요망하는 것은 마을 정보센터 보급,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같은 인프라의 확대이며, 인터넷사용료 감면 등의 재정적 지원이다. 이 고학력층은 특히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졸 이하 집단에서는 정보화교육 다음으로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컴퓨터의 저렴한 보급을 요망한다. 그리고 중졸 및 국졸 이하 집단에서는 인터넷 사용료 감면에 대한 요구와 함께 마을정보센터 보급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의 정책적인 함의를 요약해 보면, 정보취약지역의 정보화촉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 고학력층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

< 표 5 > 학력별 농어촌지역 정보화 희망방식[단위: 명, () 안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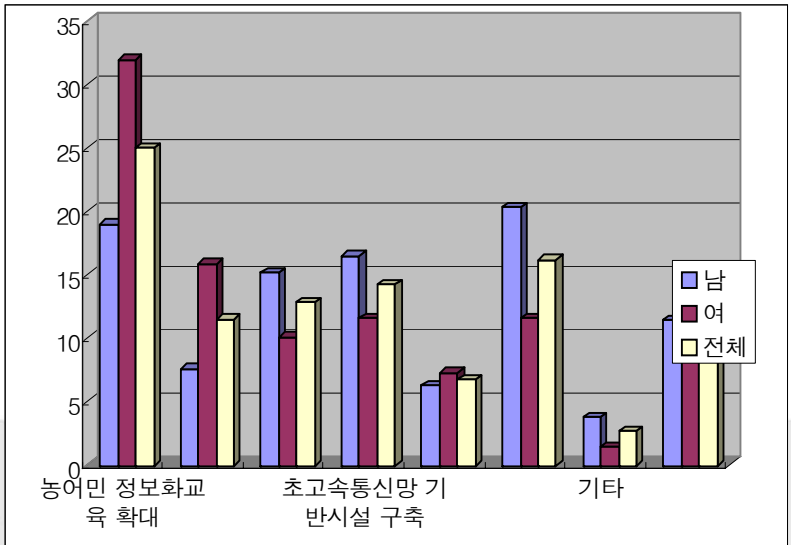
	국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학이상	계
농어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	1 (11.1)	6 (26.1)	21 (24.7)	9 (29.0)	37 (25.0)
마을정보센터 보급	2 (22.2)	4 (17.4)	6 (7.1)	5 (16.1)	17 (11.5)
컴퓨터의 저렴한 보급	0 (0.0)	3 (13.0)	13 (15.3)	3 (9.7)	19 (12.8)
초고속통신망 기반시설 구축	1 (11.1)	1 (4.4)	15 (17.7)	4 (12.9)	21 (14.2)
농어민용 프로그램 개발	0 (0.0)	0 (0.0)	8 (9.4)	2 (6.5)	10 (6.8)
인터넷 사용료 감면	3 (33.3)	7 (30.4)	10 (11.8)	4 (12.9)	24 (16.2)
기타	0 (0.0)	0 (0.0)	3 (3.5)	1 (3.2)	4 (2.7)
잘 모르겠다	2 (22.2)	2 (8.7)	9 (10.6)	3 (9.7)	16 (10.8)
계	9 (6.1)	23 (15.5)	85 (57.4)	31 (21.0)	148 (100.0)

육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에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프라의 확충과 정보이용비용의 감면에 정책적 지원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정보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성별로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농어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31.9%)를 단연 강조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인터넷 사용료 감면(20.3%)이나 초고속통신망 기반시설 구축(16.5%)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남성들은 이미 이용방법을 터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정보센터의 보급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생활환경이 대체로 제한

<그림 2> 성별 농어촌지역 정보화 희망방식



적이고 PC방 등의 출입에도 심리적 제한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여성들이 인터넷 사용료 감면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인터넷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정보화 교육

(1) 정보화교육 참여의사

지역정보화사업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요망하는 일이 정보화교육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정보화교육시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에 실제로 참여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정보화교육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정보화교육시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57%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보화교육이 완전히 무료이고 상당

<표 6> 읍·면 주민간 정보화 교육 시행시 학습참여 의사유무 비교

단위: 명, () 안은 %

구분	읍	면	계
있음	43 (54.4)	41 (59.4)	84 (56.8)
없음	36 (45.6)	28 (40.6)	64 (43.2)
계	79 (100.0)	69 (100.0)	148 (100.0)

히 편리한 위치에서 실시될 것임을 전제로 한 응답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기실, 여기에는 약간의 수치상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이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설문대상자의 약 1/3에 불과하며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피한 응답자들의 경우 참여의사가 대체로 낮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읍·면 인구의 약 1/6~1/4 정도가 정보화교육시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20% 남짓한 인구가 정보화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 역시 기대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이며 이런 높은 참여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은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은 면지역 응답자의 긍정적인 참여의사(59.4%)가 읍지역의 그것(54.4%)보다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면지역의 응답자들 중 이 문항에 대한 응답기피자가 보다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부분이다. 기실 면지역 응답자 중에 이 문항에 대한 응답기피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요는 기대 이상으로 읍·면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높다고 할 것인데, 이 점은 향후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대단히 긍정적이며, 특히 정보취약 지역으로서 면지역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정보화교육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 연령별로 볼 때, 정보화교육에 대한 학습참여 의사는 흥미로운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성별 특성으로서 여성이 남성보다 정보화 교육에 더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의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촌지역 여성 응답자들의 63.8%가 공공부문의 정

보화교육이 실시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무응답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감소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높은 비율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보건대 정보화 교육은 여성 수요자들을 고려하여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정보화교육 참여 희망자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노령층의 학습의사가 낮은 반면 30대, 40대 장년층의 참여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0대, 40대 인구가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별도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들을 농어촌정보화와 정보화교육에서 초기의 주 목표집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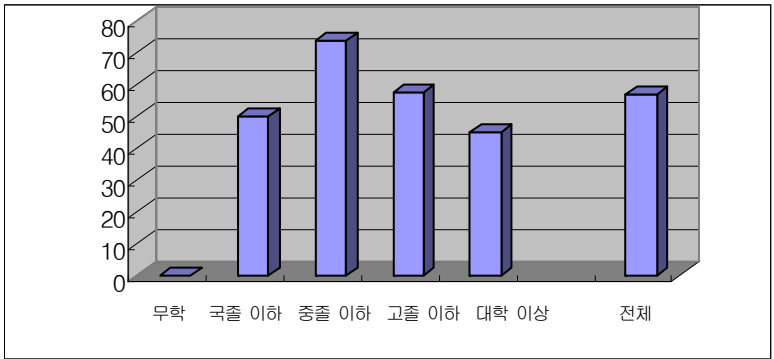
50대 이상의 노령층은 정보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낮고 자신들이 정보화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노령층의 정보습득과 활용에 가장 우수한 수단이라고 할 것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화 교육에 대한 학습참여 의사를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무학 인구의 참여의사가 낮은 반면 중고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적극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중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73.9%가 정보화교육에 참여의사를 긍정적으로 밝힌 것은 이들의 평생교육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정보화 교육사업은 중고교 졸업자 수준에 맞게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졸 이하 인구에 있어서도 컴퓨터 교육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적지 않으므로, 이들을 위해 기초적인 알파벳 교육을 포함하는 교과 과정이 별도로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업별로 볼 때, 정보화교육시 참여의사가 높은 집단은 무직, 농업직, 기능직, 상업·서비스직 등으로서 무직이나 농업종사자들은 대체로 시간이

<그림 3> 학력별 정보화 교육 시행시 학습참여 의사유무 비교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금전적 비용의 문제가 될 터인데, 학습비용이 별도로 있거나 교통비용이 필요할 경우 이들의 참여는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직이나 교사, 의사, 약사 등을 포함하는 전문직의 경우 공공적인 정보화교육보다는 집약적인 방식의 사적인 교육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보화교육 희망장소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희망장소로서는 인근 학교(33.3%), 읍·면·동 사무소(16.3%), 우체국(10.9%) 순으로 선호되고 있다.

인근 학교의 경우 컴퓨터 교육을 위한 시설이 이미 대부분 갖추어져 있고 교육환경도 우수하다는 점에서 선호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읍·면·동 사무소도 최근 정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 정책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로 개편되고 있고 일부는 컴퓨터를 설치하여 정보센터 기능을 확충해 가고 있으므로 컴퓨터교육장소로서 상당히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읍·면·동 사무소는 다소 협소하고, 설치된 컴퓨터 수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정보화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

<표 7> 읍·면 주민의 정보화 교육 희망 장소 [단위: 명, ()안은 %]

구분	읍	면	계
읍·면·동 사무소	7 (8.9)	17 (25.0)	24 (16.3)
우체국	14 (17.7)	2 (2.9)	16 (10.9)
컴퓨터회사 교육장	12 (15.2)	3 (4.4)	15 (10.2)
인근 학교	24 (30.4)	25 (36.8)	49 (33.3)
복지기관	6 (7.6)	4 (5.9)	10 (6.8)
마을회관	4 (5.1)	3 (4.4)	7 (4.8)
사설 학원	5 (6.3)	2 (2.9)	7 (4.8)
도서관	3 (3.8)	2 (2.9)	5 (3.4)
근처 PC방	3 (3.8)	6 (8.8)	9 (6.1)
기타	1 (1.3)	4 (5.9)	5 (3.4)
계	79 (100.0)	68 (100.0)	147 (100.0)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교육장소에 대한 읍·면지역 응답자들의 선호를 비교해 보면, 읍·면지역 주민 모두가 인근 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읍지역 응답자들이 우체국을 선호한 데 대해 면지역 응답자들은 읍·면·동 사무소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읍의 우체국이 상당한 면적과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정보화 교육장으로서 보다 적합한데 대해 면지역의 우체국은 규모가 협소하여 이러한 교육장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면지역의 경우에, 우체국보다 면사무소가 선호되고 있는 것도 면사무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활용하지는 의견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읍지역 인구 중 일부는 컴퓨터회사의 교육장을 활용하지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바, 컴퓨터회사의 교육장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사설학원을 이용한 공공 정보화교육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별로 많지 않았다.

정보화교육 희망 장소에 대한 남녀간의 특성을 비교해 보자. 우선 남

<표 8> 성별 정보화 교육의 희망 장소 [단위: 명, ()안은 %]

	남	여	계
읍·면·동 사무소	11 (13.9)	13 (19.1)	24 (16.3)
우체국	8 (10.1)	8 (11.8)	16 (10.9)
컴퓨터회사 교육장	8 (10.1)	7 (10.3)	15 (10.2)
인근 학교	24 (30.4)	25 (36.8)	49 (33.3)
복지기관	8 (10.1)	2 (2.9)	10 (6.8)
마을회관	5 (6.3)	2 (2.9)	7 (4.8)
시설학원	2 (2.5)	5 (7.4)	7 (4.8)
도서관	2 (2.5)	3 (4.4)	5 (3.4)
근처 PC방	8 (10.1)	1 (1.5)	9 (6.1)
기타	3 (3.8)	2 (2.9)	5 (3.4)
계	79 (53.7)	68 (46.3)	147 (100.0)

성이나 여성에 관계없이 정보화 교육장으로 인근 학교시설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단연 높았다. 다음으로는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컴퓨터회사의 교육장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점에서도 남녀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인근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높으며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선호 역시 높다. 즉 여성들은 보다 공식적인 기관을 활용하여 교육이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성들은 여타 장소에 대해서는 여성들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선호도를 보이지만 PC방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PC방에서 컴퓨터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성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남성들에서는 10% 이상이 PC방에서의 컴퓨터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PC방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평판이 있어서 그 실현 여부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서 검토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정보화 교육장소로서 연령별로 선호되는 장소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은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을 정보화 교육의 최적지로 들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소양교육은 가능할 것이다. 30대와 40대의 응답에서

<표 9> 학력별 정보화 교육의 희망 장소 [단위: 명, () 안은 %]

구 분	국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 이상	계
읍·면·동 사무소	0 (0.0)	4 (17.4)	12 (14.3)	8 (25.8)	24 (16.3)
우체국	1 (11.1)	2 (8.7)	9 (10.7)	4 (12.9)	16 (10.9)
컴퓨터회사 교육장	2 (22.2)	1 (4.4)	10 (11.9)	2 (6.5)	15 (10.2)
인근 학교	5 (55.6)	12 (52.2)	22 (26.2)	10 (32.3)	49 (33.3)
복지기관	0 (0.0)	2 (8.7)	4 (4.8)	4 (12.9)	10 (6.8)
마을회관	0 (0.0)	0 (0.0)	7 (8.3)	0 (0.0)	7 (4.8)
사설학원	0 (0.0)	0 (0.0)	7 (8.3)	0 (0.0)	7 (4.8)
도서관	1 (11.1)	1 (4.4)	3 (3.6)	0 (0.0)	5 (3.4)
근처 PC방	0 (0.0)	1 (4.4)	5 (6.0)	3 (9.7)	9 (6.1)
기타	0 (0.0)	0 (0.0)	5 (6.0)	0 (0.0)	5 (3.4)
계	9 (6.1)	23 (15.7)	84 (57.1)	31 (21.1)	147 (100.0)

특징적인 것은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이 연령대의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찾는 일이 잦기 때문에 그곳에 익숙할 뿐 아니라 최근 기능전환사업을 잘 알고 있는 까닭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20대는 인근 학교와 근처 PC방을 가장 많이 꼽았고 10대는 인근 학교와 컴퓨터회사 교육장을 정보화교육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

정보화 희망 장소를 학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졸 혹은 중졸 이하 학력자들의 경우 인근 학교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교육이 단순한 컴퓨터이용 교육을 넘어서 보다 기초적인 교육까지도 포함하여 줄 것을 희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졸 이하 학력자들의 경우에는 인근 학교 다음으로, 읍·면·동사무소, 컴퓨터회사 교육장, 우체국 등을 고르게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편리한 위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경우에는 인근 학교 다음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희망하는 경향성이 높았다. 읍·면·동 사무소를 최근 주민자치센터로 개조함에 따라서 이를 정보화 교육장과 정보센터로도 활용할 수

있을 터인데,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이러한 사정을 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마을정보센터 설치

(1) 마을정보센터 이용의사

농어촌지역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 중 마을정보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요망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기실 농어촌지역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사무소 외에 별도로 마을마다 마을정보센터를 만드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마을정보센터를 통해 소지역 단위의 농촌지역 정보화를 추진해 가는 사례는 적지 않으며 더구나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마을정보센터는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PC방이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의 종합적인 정보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마을정보센터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그것의 필요성을 그렇게 높게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설치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 높다. 읍의 경우 90% 이상, 면지역의 경우 80% 이상이 마을정보센터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응답으로 처리된 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을 감안하고, 지방정보센터가 제공된다면 누구든지 한번쯤은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크게 놀라울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 판단하건대 마을정보센터는 대부분의 농어촌 주민들에게 생소하고 특히 노령인구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마을정보센터 설치를 지지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 측면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마을정보센터 설치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보인다.

<표 10> 읍·면 주민의 마을정보센터 설치시 이용의사 [단위: 명, ()안은 %]

구분	읍	면	계
있음	74 (93.7)	56 (81.2)	130 (87.8)
없음	5 (6.3)	13 (18.8)	18 (12.2)
계	79 (100.0)	69 (100.0)	148 (100.0)

성별로 볼 때, 마을정보센터에 대한 이용의사는 남녀간의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86.1%가 마을정보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데 대해 여성은 보다 많은 89.9%가 이용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성들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가사를 제외한 여타의 활동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데 대해 정보화와 같은 새로운 활동에 여성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요즘의 현상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마을정보센터 이용의사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마을정보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차츰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그 차이는 다소 미미하다. 마을정보센터를 이용하려는 용의는 10대 90.6%에서 50대 83.3%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학력별로 마을정보센터 이용의사를 조사한 결과는 학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 응답자들의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는데 중졸 이하 학력자들의 95.7%가 마을정보센터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이었고 고졸 이하 학력자들의 88.2%도 같은 응답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이상 학력자들은 마을정보센터 이용의사가 83.9% 수준이었고 국졸이하 학력자들은 77.8%가 마을정보센터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대졸이상 학력자들은 마을정보센터보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와 PC통신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

<표 11> 학력별 마을정보센터 설치시 이용의사 [단위: 명, () 안은 %]

구분	국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학이상	계
있다	7 (77.8)	22 (95.7)	75 (88.2)	26 (83.9)	130 (87.8)
없다	2 (22.2)	1 (4.3)	10 (11.8)	5 (16.1)	18 (12.2)
계	9 (5.4)	23 (15.5)	85 (57.4)	31 (21.0)	148 (100.0)

고 국졸이하 응답자 중에서는 그 사용법을 잘 몰라서 마을정보센터 이용을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이용의사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직업별로 마을정보센터 이용에 대한 의사를 비교해 보면, 농업 종사자들과 상업·서비스직 종사자의 이용의사가 가장 높고 다음이 학생과 무직이다. 즉, 자유업에 종사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마을정보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보다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직, 기능직, 전문직 종사자들과 같이 대체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주민들은 마을정보센터 이용의사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문 직업인들이 직장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정보센터에 대한 수요가 보다 낮다는 점과 직장생활로 인해 여유가 보다 적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마을정보센터 설치 희망 장소

마을정보센터의 설치 희망 장소는 인근 학교, 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우체국, 지역도서관 순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정보화교육장소에 대한 선호와도 유사성이 크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그 경향치는 상당히 다르다.

마을정보센터 희망 장소로는 인근 학교가 19.6%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여타의 항목들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데 읍·면·동 사무소가 18.9%, 마을회관이 18.2%, 우체국이 17.6%의 비율로 각각 선호되고 있다. 특히 마을회관은 정보화교육장소로서는 높게 평가되지 않았지만 마을정보센터 설치 희망 장소로서는 상당히 선호됨을 볼 수 있다.

<표 12> 읍·면별 마을정보센터 설치희망 장소 [단위: 명, () 안은 %]

구분	읍	면	계
우체국	21 (26.6)	5 (7.3)	26 (17.6)
읍·면·동 사무소	8 (10.1)	20 (29.0)	28 (18.9)
지역 도서관	12 (15.2)	8 (11.6)	20 (13.5)
마을회 관	10 (12.7)	17 (24.6)	27 (18.2)
인근 학교	20 (25.3)	9 (13.0)	29 (19.6)
노인정	1 (1.3)	0 (0.0)	1 (0.7)
복지기 관	4 (5.1)	4 (5.8)	8 (5.4)
교회 등 종교시설	0 (0.0)	1 (1.5)	1 (0.7)
기타	3 (3.8)	5 (7.3)	8 (5.4)
계	79 (100.0)	69 (100.0)	148 (100.0)

읍·면지역을 나누어서 비교해보면 두 지역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읍지역의 경우 우체국과 인근 학교, 지역 도서관이 선호되는데 대해, 면지역은 읍·면·동사무소와 마을회관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두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왕래가 잦은 시설들 간의 차이로부터 이해될 현상으로 판단된다.

마을정보센터 설치 희망 장소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들의 경우 마을회관(20.3%), 우체국(19.0%), 인근 학교(19.0%)를 우선적으로 들고 있는데 대해 여성들은 인근 학교(20.3%)를 가장 많이 꼽고, 다음으로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지역도서관, 마을회관을 비슷한 비율로 희망하고 있다. 더하여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가 남성들보다 높은데 이는 여성들이 종교 활동을 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이어서 마을정보센터 설치 희망 장소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주민들이 마을정보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이한 경향치를 볼 수 있다. 40대나 50대 등 중장년층의 경우 마을회관에 마을정보센터가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10~30대에서는 마을회관에 대한 선호도가 현격히 떨어진다. 이에 대해 40~50대에서는 마을정보센터 설치장소로서 우체국에 대한

희망이 낮은 반면 10~30대는 우체국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선호하고 있다.

읍·면·동 사무소는 20~40대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교육장소에 대한 해당 연령층의 읍·면·동사무소 선호와 유사한 것이다. 다소 특이한 것은 학교를 마을정보센터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10대와 50대에서 높다는 점인데 이는 정보화교육장소로서 학교활용에 대한 의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정보화시범마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은 특정 농어촌 마을을 지정해서 이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정보화의 수범이 되는 마을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을 단위의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포함되며 농어촌마을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과 콘텐츠개발까지가 포함된다. 이 사업은 물론 정부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 마을에서 상당부분을 스스로 출연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경비부담도 져야 하는 사업이다(행정자치부, 2001). 정부의 정보화시범마을 구상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일부 사례에 착안하여 이를 시책화한 것으로서 사업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배경에는 정보화 소외(취약)계층(underserved population)에 대한 정보화확산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네트워크의 개념이 원용되어 있다(R. H. Anderson, 1995: 120).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정보화시범마을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약 60%의 응답자가 참여희망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은 읍·면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듯 높은 참여 희망비율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인데, 이는 대체로 현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응답자들의 반응으로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반응

< 표 13 > 읍·면별 정보화시범마을 사업 추진시 참여의사

단위: 명, () 안은 %

구분	읍	면	계
있음	45 (57.0)	40 (58.0)	85 (57.4)
없음	16 (20.2)	18 (26.1)	34 (23.0)
잘 모르겠음	18 (22.8)	11 (15.9)	29 (19.6)
계	79 (100.0)	69 (100.0)	148 (100.0)

은 다소 부정적일 것을 감안한다면 참여희망 정도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의지가 더 높고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¹⁾ 정보화시범마을 사업과 같이 자신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일에 여성의 참여의사가 높다는 것은 다소 의외라고도 보이지만 이 조사의 여타 부문에서도 여성의 정보화 욕구가 더 강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시 참여의사를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중졸 이하 학력층의 참여의사(78.3%)가 가장 높고 국졸 이하 학력층의 참여의사(22.2%)가 가장 낮다. 국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들의 경우 특히 참여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중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층들에서는 고졸 이하 학력이나 대학 이상 학력에 관계없이 50% 이상의 높은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학력별 참여의사는 중학에서 영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가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연령별 조사에서 60대의 지역정보화시범마을사업의사가 100%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이 연령층의 응답자 수가 1인인데 기인하는 것으로 예외적인 수치로 볼 수 있다.

직업별로는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행정사무직, 전문직, 기능직, 학생 등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직업종사자들에서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업이나 상업·서비스업 등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직종의 종사자들의 참여 의사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종합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지역간 정보격차와 그 해소를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특히 정보화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지역정보화 수준 및 정보화 수요에 관한 조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읍·면지역 가구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과 수요를 조사한 것은 기존의 정보화실태조사들이 지역적 분석보다는 여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 정보화의 취약지역인 읍·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결여되어 왔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노령인구와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면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이 현저히 낮은 반면, 주로 상공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읍지역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적인 중소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간의 정보화 실태 조사들에서 읍·면지역을 동일 범주로 묶어서 접근함으로써 간과하였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본 조사 결과와 기존의 조사를 종합해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지역은 정보화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면지역의 경우는 매우 대조적으로서 현격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다른 목적은 정보취약지역인 읍·면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정보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이 조사 결과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목표가 면지역에 집중될 필요가 있고, 특히 면지역 인구들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정보접근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저렴한 컴퓨터 보급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면지역이 지역정보화의 최대 취약지역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공공적 보조를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읍·면지역 내에서 설문응답자들을 연령, 직업, 학력, 성별로 나누어 볼 때 각 집단별로 정보화 필요와 의지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띄었으며, 정보화 수요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다양하고 유연한 지역정보화 전략과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상욱. 2000. 『지역주민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전국 시장·군수 정보화교육 교재』.
- 김선기. 1998.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운영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99권.
- 오연천. 2000. 『정보불평등 현황 및 해소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http://www.mic.go.kr/newjsp>.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1. 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1997.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발전방향』.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00. 9; 2001. 1; 2001. 7.
- 한국전산원. 2000. 『2000 정보화통계집』.
- _____. 각 연도 『국가정보화백서』.
- _____. 2000. 『소외계층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실태조사』.
- _____.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2000. 12.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2000 한국의 컴퓨터 보급현황』. 2001. 4.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1. 원본자료.
- _____. 『2001 국민정보생활 및 격차 현황』. 2001. 6.
- _____. 각 연도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 _____. 1996.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001. 2.

Antonelli, C. 1991. *The Diffusion of Advanced Telecommunic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OECD Publications.

Cairncross, F. 1997. *The Death of Distance: how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will change our lives*.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Gilder, G. 1994. "The Bandwidth Tidal Waves." *Forbes* ASAP. December 5.

ITU. *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2001. 7.

NTCA-World Bank Speech. 1999. "Forging A Connected Global Village." Remarks by Larry Irving. Assistant Secretary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NTIA U.S.

The Economist. 1999. *United States: The Digital Divide*. April 17.

<http://lovepc.icc.or.kr>

<http://www.choroc.co.kr>

<http://www.mic.go.kr>

<http://www.nca.or.kr>

<http://www.nic.or.kr>

<http://www.silvernet.or.kr>

<http://www.krnic.net>

